

유영상號 SKT 출범... AI·디지털 내세워 매출 22조 목표

(2025년)

SKT·SK스퀘어 인적분할 마무리 AI·클라우드 등 통신관련 사업 집중 안정적 유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이 통신 기반의 'SKT'와 반도체 및 신규 사업 중심의 'SK스퀘어'로 인적분할을 마무리했다.

SKT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수성과 동시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콘텐츠 등 통신 관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SKT 2.0'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으로 유영상MNO 사업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인공지능(AI) & Digital Infra 서비스 컴퍼니' 비전과 함께 ICT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새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SKT 2.0 시대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유 사장은 새로운 SKT가 지향해야 할 경영 3대 키워드로 '고객·기술·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는 'SKT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고,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SKT타워 전경.

/SK텔레콤

◆AI 서비스·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강화

SKT는 3대 핵심 사업 영역인 ▲유무선 통신 ▲AI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2025년 매출 목표 22조를 달성할 계획이다.

5G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과 더불어 1등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효율적인 5G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SKT와 SKB 시너지를 통해 IPTV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OTT와 미디어 사업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서비스 영역에서는 지난 9월 처음 선보인 SKT 구독 서비스 'T우주'는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을 지속 추가해 혜택 범위를 넓히고 ▲구독 상품에 특화된 유통망 확대 ▲글로벌 스토어 상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여 구독형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사업은 5G MEC 및 전용회선 인프라 등 AI/DT 기반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지향하고, 제조/보안/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인더스트리얼 IoT 사업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SK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비스 컴퍼니로서 다양한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과의 초(超)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메타버스·미디어·커머스·클라우드/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사업 영역에서 MS,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도이치텔레콤 등 우수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 컴퍼니 가치 창출

SKT는 '커넥티비티'를 책임지는 1등 서비스 컴퍼니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정적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ICT 기반의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는 앞으로 'ESG 구독' 및 '소상공인 T deal' 등 ICT 서

비스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태양광 기지국 구축 및 고효율 장비 개발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해피해빗 사업 확대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 절감 등 환경 관점의 ESG 추진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SKT가 지향할 비전과 사업 방향이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물론,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사장의 굳은 신념이다.

특히 'SKT 2.0'을 이끌 CEO로서 새 SKT의 비전과 목표를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했다.

유 사장은 SKT 전체 구성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소통과 협업을 내부에 그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 및 SK스퀘어를 포함한 SK ICT 패밀리 전체로 확대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성원 주주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회사의 성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은행권 10월 가계대출 3.4조

주택담보대출 지난달비 3.8조 ↑ 신용대출 잔액 140조8279억원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한도를 낮추거나 대출을 중단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총량관리부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706조 3258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 4381억원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3조 5068억원, 9월 4조 729억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증가세가 감소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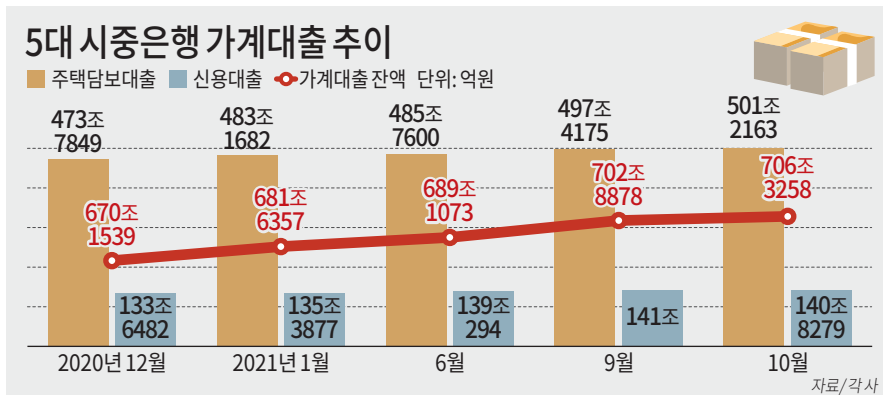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1조 2163억원으로 3조 7988억원 늘었다. 지난달 4조 279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신용대출 잔액도 140조 8279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72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대출을 중단한 영향이 가장 컸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0.3% 포인트(p)까지 제공하는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날 농협은행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대출한도는 신용대출이 1억원,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5000만원이었다. 영업점별로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대폭 삭체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연 0.5%p에서 0.3%p로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 우대금리는 아예 삭체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6월 말 연 1.236%에서 10월 말 1.6347%로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포스코인터내셔널 신규에너지탐사 및 개발 현황

- 말레이시아**
 - 1 말련 PM524 광구
 - 수심: 50~80m · 면적: 4,738km²
 - 가스전 탐사 기간(2021년 4분기~2025년 3분기)
- 인도네시아**
 - 2 인니 신규 광구 공동조사사업권
 - 인니 東자바 천해 · 면적: 11,515km²
 - 공동조사 기간(2021년 6월~2022년 2월)
- 호주**
 - 3 호주 가스전 운영사 인수 추진 중
 - 매장량 확인된 생산자원 확보
 - 탄소 저장, 블루·그린 수소사업 플랫폼화

자료/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 말레이 해상광구 생산물분배계약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계약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해상 광구 탐사운영권을 획득하며 미얀마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사업 지도를 넓혔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E&P(Exploration & Production) 사업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로서 미얀마에 이어 제2의 자원개발 신화에 도전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일 동남아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와 말레이반도 동부 천해 PM524 광구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8월 국제 입찰로 PM524 광구 탐사권 낙찰사로 선정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 및 페트로나스 차리갈리(PETRONAS Carigali Sdn Bhd, 페트로나스 지분 100% E&P 자회사)와 생산물분배계약 세부조건에 대한 조율을 거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분 80%를, 페트로나스 차리

갈리가 지분 20%를 보유하게 된다.

생산물분배계약은 탐사 성공 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 일부를 계약자가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우선 거둬들이는 뒤 잔여분을 정부와 계약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동남아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약형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구운영권을 포함한 4년의 탐사기간과 24년의 개발 및 생산기간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3D 인공지진과 재처리 등 최신 기술을 통해 광구의 유망성을 평가하고, 2025년부터 탐사시추를 통해 가스 발견에 나서 가스 발견 시 말레이시아 내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PM524 광구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위치한 말레이반도의 동쪽 해상 수심 50~80m인 천해 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4738km²다.

주시보 사장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국영석유사인 페트로나스 주도로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

그룹포트폴리오 총괄 신설 사장에 김도원 파트너 선임

두산그룹은(주)두산 지주 부문 내에 '그룹 포트폴리오 총괄'을 신설하고 김도원 보스던컨설팅그룹(BCG) 서울 대표 파트너(사진)를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도원 사장은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비전 및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도원 사장은 1995년 BCG에 입사해 약 25년 간 에너지사업 분야 등을 담당해왔다. 2019년부터 BCG 서울 대표 파트너를 지냈다.



/양성운 기자

SKC

3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SKC가 3분기 매출 8868억원, 영업이익 1458억원을 거두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매출은 32.8%, 영업이익은 139.1% 증가했다.

SKC는 1일 서울 종로구 SKC 본사에서 이용선 인더스트리소재사업부문장, 원기돈 SK피아씨글로벌대표, 김영태 SK넥실리스대표, 오준록 SKC솔믹스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양성운 기자